

로샤 반응에 나타난 공격행동의 예측변인: 공격적 운동반응과 공백반응을 중심으로

김 태 경[†]

가천의대부속 길병원 신경정신과

김 재 환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로샤 검사에서 공격성 예측변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격적 운동 반응(AG)과 공백 반응(S) 및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고 있는 공격적 내용(AgC) 변인이 실제 공격행동을 얼마나 예측해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정신과 입원환자 71명이었으며, 실제 공격행동은 수정된 명백 공격행동 척도(MOAS)로 평정되었다. 연구 결과, 공격적 운동 반응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공백반응은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운동집단($AG > 2$, $S < 4$), 공백반응집단($AG < 3$, $S > 3$) 및 비교 집단($AG < 3$, $S < 3$)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MOAS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공격적 운동집단은 입원전의 물건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에서, 그리고 공백반응 집단은 입원 기간중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에서 나머지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로샤 변인의 집단간 비교분석 결과, 순수 색채반응과 병적인 내용이 공격적 운동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내용은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와 몇 가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로샤, 공격행동 예측변인, AG, S, AgC, MOAS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태 경 / 가천의대부속 길병원 신경정신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
FAX : 032-467-9302 / E-mail : psych30@hanmail.net

임상 장면에서 공격 행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들어서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과 환자에게 현재 폭력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폭력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지 평가해야만 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Arango, Barba, Salvador, & Ordóñez, 1999).

이들의 공격 행동은 사회에서 일으키는 범죄 행위 이외에도 정신과 입원실에서의 타인과 자신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임상적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간주된다(Caldwell & Gottesman, 1990). 실제 정신분열병 환자의 9%(Tanke & Yesavage, 1985)에서 45%(Shader, Jackson, Harmatz, & Appelbaum, 1977) 정도가 병실 내에서 심각한 공격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격 행동의 예측과 예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로샤 검사에 나타난 정신과 환자들의 공격성과 적개심의 예측 변인을 찾기 위한 노력은 194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Rader, 1957; Baity & Hilsentoth, 1999에서 재인용; Rose & Bitter, 1980). 몇몇 연구자들은 상이한 로샤 공격 변인들의 유용성과 수렴 타당도를 계속 연구해왔다(Exner, 1985; Gacono, Meloy, & Berg, 1992; Holt, 1977; Saunders, 1991; Westen, 1990). 이런 연구들은 성격 특성과 진단 유형별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공격성의 구성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공격적 반응을 범주화하는데 사용되는 로샤 검사의 몇 가지 변인들이 제안되고 있다.

공격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샤 변인은 Exner(1986, 1993)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변인들에는 공격적인 운동 반응(AG)과 공백 반응(S)이 포함된다. 공격적 운동 반응은 '명백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며, 공격적인 행위가 주체

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만 채점된다. 예를 들어, "두 동물이 싸우고 있다", "무엇인가를 격파하고 있는 대포", "두 사람이 무언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 "당신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격 운동 반응의 상승은 공격적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타인을 향한 보다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시사한다(Kazaoka, Sloane, & Exner, 1978; Exner, 1993에서 재인용). 게다가, Exner, Kazaoka와 Morris(1979; Exner, 1993에서 재인용) 등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공격적 운동 반응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공백 반응은 카드의 잉크 부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백 부분을 지각할 때, 즉 그림과 배경을 뒤바꿔서 지각하는 경우에 채점된다(Rorschach, 1942; Fonda, 1977에서 재인용). Klopfer, Ainsworth, Klopfer와 Holt(1954) 등은 공백 반응이 건설적인 자기 주장을 반영한다고 하였고, Piotrowski(1957)는 독립성의 추구와 상관이 높다고 해석하였으며, Rosen(1952)은 MMPI의 Pd척도와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Fonda(1977)는 공백 반응을 자율성을 방어하려는 노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Exner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공백반응의 빈도와 자살 지표와의 긍정적 상관을 근거로 하여, 공백반응이 분노 조절의 어려움 및 심리적 불만족감과 관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체 반응이 평균 범위에 있고 공백 반응이 1-2개이면 어느 정도 주어진 과제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향성을 시사하지만, 공백 반응이 3개 이상인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타인과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Exner, 1993; Weiner,

1998). 또한, Ganellen (1996)은 공백 반응이 3개 이상일 때 정서적으로 화가 나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 운동 반응이 함께 상승할 때($AG > 2$)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이 행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로샤 반응에 나타난 또 다른 공격 관련 변인은 최근에 Gacono와 Meloy(1994)에 의해 개발된 공격적 내용(AgC)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취적이거나 위협하거나 악의에 차있거나 혹은 해로운 것이라고 지각하는 대상을 공격적인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 Baity, McDaniel과 Hilsenroth(1999) 등은 공격적인 내용이 공격성의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치임을 발견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일치율 = 99%, $\kappa = .95$),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APA, 1994)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고(ASPD: $R = .35$, $R^2 = .12$), MMPI-II Pd척도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다, $R^2 = .16$ (Butcher, Dahlstrom, Graham, Tellegen, & Kaemmer, 1989; Baity et al, 2000에서 재인용).

그밖에, 자아중심성지표와 반사 반응의 상승 및 통통반응과 재질반응의 부재(Loving & Russell, 2000); 모호한 질의 반응 증가, Zd 저하, 평범반응 저하, 양향적인 문제해결 양식(EBPer), 낮은 내적 자원(낮은 EA), 순수 색채반응 증가, L의 상승, 정서비의 저하, 재질 반응의 저하(Kaser-Boyd, 1993); Holt(1977)에 의해 제안된 변인인 일차 과정적 공격내용(강렬하고, 압도적이며, 잔인하거나, 혹은 명백한 가학·피학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 병적인 내용의 증가(Nancy, 1993) 등이 공격성 예측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인들이 정말로 공격 행동을 예언해줄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집단(예를 들어, Loving et al, 2000)이나 DSM-

IV의 B군 성격장애와 같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타해 혹은 자해 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집단군(예를 들어, Baity et al, 1999; Gacono, 1990; Gacono et al, 1994)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로샤 검사의 공격 변인이 정말로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해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로샤의 공격 변인과 실제 공격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면의 분노와 적개심이 실제 공격행동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질과 촉발요인의 영향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으며, 분노감정이 더 많다고 해서 실제 공격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샤의 공격성 예측 변인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공격적 운동 반응(AG)과 공백 반응(S), 및 공격내용(AgC)이 실제 공격행동을 얼마나 예언해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00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입원 치료를 받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들 중 로샤 검사를 포함한 종합심리평가가 시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100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기질적 뇌손상이나 물질남용 진단을 받았거나 경계선 이하의 지능을 지닌 경우, 입원 기간이 일주일 미만으로 짧은 경우, 그리고 전체 반응수 14개 미만인 자료는 통계적 분석에 의미가 없다는 Exner (1986)의 제안에 따라,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에서 로샤의 반응 기록지가 분실되었거나 혹은 반응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재채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입

원 기록지를 찾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71개였다.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DSM-IV에 의거하여 대해 내린 최종 진단명으로 하였으며, 정신분열증 43%(편집형=25명, 비편집형=5명), 기분장애 17%(우울증=5명, 양극성장애=7명), 성격장애 31%(A군 성격장애=4명, B군 성격장애=18명, C군 성격장애=0명), 기타 10%(불안장애= 3명, 적응장애= 2명, 섭식장애= 1명, 망상장애= 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9.82세($SD=9.83$)였으며, 최소값은 18, 최대값은 61이었다. 남성이 36명, 여성이 35명으로 남녀간의 비율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44명(61.1%)이었으며, 기혼이 22명(30.6%), 사별 2명(2.8%), 이혼 4명(5.6%)이었다. 무직이 45명(62.5%)이었으며, 유직은 27명(37.5%)이었다. 학력은 평균 12.74세($SD=2.73$)였으며, 최소 6년에서 최대 18년으로 나타났고, 최빈치는 14년이었다. 지능은 105.60($SD=13.80$)이었고, 최소값은 77, 최대값은 134였다. 로샤의 평균 반응수는 21.366($SD=6.90$)이었고, 최소값은 14, 최대값은 45였다.

로샤의 채점

표집된 모든 로샤 반응에 대해 연구자가 Exner (1986, 1993)의 종합체계에 따라 다시 채점을 하였으며, 공격적 운동반응과 공백반응에 대한 연구자와 이전 검사자와의 일치도는 8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표집된 로샤 자료 중 15사례를 무선 표집하여,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이 재채점을 한 후, 구조 요약에 있는 모든 변인에 대한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일치도 92%로 높게 나타났다.

개개의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공격내용을 채점하였다. 공격내용은 Baity 등(2000)이 최근에 타당

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바 있는 공격내용 변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A 유형에 속하는 내용을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칼날(검, 돌칼), 독거미, 폭발, 권총, 엽총, 소총, 코브라, 독사, 물뱀, 방울뱀, 사자, 악어, 악마, 귀신, 사신, 불, 산불, 화산, 폭풍, 해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어뢰, 수뢰, 미사일, 핵 구름, 핵탄두, 폭격기, 전갈, 상어, 작살, 창 등이 해당되었으며, 공격적 운동반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따로 채점하지 않았다.

공격 행동의 평가

수정된 명백 공격행동척도(Modified Overt Aggression Scale: 이하 MOAS, Knoedler, 1988)를 이용하여 입원 직전 일주일 동안의 공격행동과 입원 기간중의 언어적 공격행동, 소유물에 대한 공격행동,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행동을 평가하였다. 각 하위 공격 유형마다 0점에서 4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게 되어 있으며, 언어적 공격행동은 가중치를 받지 않으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행동에 이르면 해당 점수에 4점을 곱해준다.

언어적 공격행동 항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끼치기 위한 발언이나 욕설 같은 언어적 적대감 표현’을 평가하며, 화가 나서 소리치고 약간 욕설을 하거나 남에게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1점)에서부터 자기나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이나 성(性)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인 폭력위협을 가하는 것(4점)에 이르는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유물에 대한 공격행동은 ‘병실 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무모하고 억제할 수 없는 파괴행동’을 말하며, 문을 쾅 닫거나 옷을 찢는 것(1점)에서부터 불을 지르거나 물건을 위협하게 집어던지는 행동(4점)에 이르는 것들이 평가된다.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은 ‘자해

나 자살 시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한 물리적 상해'를 말하며, 경미하게는 피부를 꼬집거나 긁는 것, 머리를 쥐어뜯는 것,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때리는 행동(1점)에서부터 심한 경우 스스로 심한 충상을 입히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4점)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 항목에서는 '타인에게 고통이나 신체적 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죽이기 위한 공격적 행동'을 평가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취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혹은 옷을 붙잡는 행동(1점)에서부터 심한 부상을 야기하는 타인에 대한 공격 행동(4점)이 여기에 포함된다. 입원전의 공격행동에 대한 평가는 입원면담 시에 기록된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입원 기간 중의 공격행동에 대한 평가는 입원 기간 중의 경과 기록지 및 간호일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평가는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중 15 사례를 무선표집하여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이 재채점한 다음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92$ 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자료 분석

로샤의 공격적 운동 반응, 공백 반응, 및 공격

내용 변인과 MOAS 하위 점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집단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절단점을 기준으로 공격적 운동 반응만 상승한 집단, 공백반응만 상승한 집단, 이 두 변인 모두 상승하지 않은 비교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분산 분석과 Scheffe 대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집단 간 로샤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과 대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분석은 SPSS 10.0버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공격행동의 발생 빈도

입원 전과 입원 기간 중의 언어, 물리적,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의 발생빈도(가중치를 주지 않은 원점수의 빈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격 행동 발생빈도는 입원 전에서 110건이었으며, 입원 기간 중에서 14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점 이상에 해당하는 비교적 정도가 강한 공격행동의 발생 빈도는 입원 전

표 1. 공격행동의 발생 빈도

	입원 전 일주일				입원 기간 중			
	언어공격	물건공격	자기공격	타인공격	언어공격	물건공격	자기공격	타인공격
0점	31	37	51	44	55	63	67	66
1점	7	10	7	7	10	5	2	2
2점	22	12	6	10	5	3	2	3
3점	10	11	3	9	1	0	0	0
4점	1	21	4	1	0	0	0	0

에서 60건, 그리고 입원 기간 중에는 단지 1건으로 적게 나타났다.

로사의 공격 변인과 공격행동의 상관관계

공격적 운동 반응, 공백 반응 및 공격 내용 변인과 공격 행동의 하위 유형간의 이원상관 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공격적 운동은 입원 전의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과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r=.261, p<.05, r=.322, p<.01$), 공백반응은 입원전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과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r=.268, p<.05$). 공격내용 변인은 실제 공격행동과는 의미 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공격적 운동 반응과 공백 반응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 관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격내용 변인과 공격적 운동 및 공백반응 간에는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71, p<.05; r=.290, p<.05$.

공격적 운동이 2개 이상이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공백반응이 3개 이상이면 타인과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Exner(1993)와 Weiner(1998)의 제안에 따라, 공격적 운동이 2개 이상인 집단과 2개 미만인 집단, 공백반응이 3개

이상인 집단과 3개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제 공격 행동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독립집단 평균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 운동 반응이 2개 이상인 집단과 미만인 집단간에 실제 공격행동 하위 척도들에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공격적 운동 반응이 3개 이상인 집단과 3개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동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원 전의 물건에 대한 공격행동($t=2.649, p<.01$)과 입원전의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t=3.931, p<.01$)에서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공백반응이 3개 이상인 집단과 3개 미만인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실제 공격행동 하위 척도들에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공백 반응이 4개 이상인 집단과 4개 미만인 집단으로 나누어 동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원 기간 중의 언어적 공격행동($t=2.067, p<.05$)과 입원 기간 중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t=2.630, p<.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공격적 운동 반응만 상승한 집단(공격적 운동집단), 공백반응만 상승한 집단(공백집단), 두 변인이 모두 상승하지 않은 집단(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공격행동 하위 유형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두 변인이 모두 상승한 경우는

표 2. 공격적 운동, 공백반응, 공격내용과 명백 공격행동점수의 상관계수

	입원 전				입원 기간 중			
	언어공격	물건공격	자기공격	타인공격	언어공격	물건공격	자기공격	타인공격
AG	.129	.169	.261*	.322**	.093	.057	-.019	-.066
S	-.046	.000	.268*	.032	.122	.010	.228	.011
AgC	.084	.146	.105	.019	.181	.099	.148	-.132

* $p<.05$, ** $p<.01$

표 3. 공격적운동집단, 공백집단, 비교집단간의 하위 공격행동 유형별 분산분석

공격행동유형	공격운동집단 ¹⁾ (N=12)	공백집단 ²⁾ (N=18)	비교집단 ³⁾ (N=40)	F	대비
입원전					
언어공격	1.917(1.08)	1.111(1.08)	1.077(1.18)	2.518	
물건공격	3.833(2.33)	1.778(2.46)	1.641(2.24)	4.293*	1>3
자기공격	2.750(4.33)	3.000(4.24)	1.154(2.72)	2.169	
타인공격	8.333(4.33)	3.333(4.39)	2.256(4.08)	9.620**	1>2, 3
입원중					
언어공격	.583(.99)	.611(.85)	.128(.34)	4.527*	2>3
물건공격	.667(1.56)	.556(1.15)	.103(.45)	2.494	
자기공격	.250(.87)	.833(2.01)	.000(.00)	3.678*	2>3
타인공격	.667(2.31)	.667(2.06)	.308(1.42)	.348	

* $p < .05$, ** $p < .01$

한 사례에 그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 집단의 진단, 나이, 학력, 결혼 상태, 직업 유무, 및 전체 지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산 분석 및 대비분석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세 집단간의 전반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69) = 2.109$, $p < .05$. 공격행동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격적 운동집단이 물건에 대한 공격행동 항목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 항목에서는 공백집단과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입원 중의 언어적 및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 항목에서는 공백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집단의 로샤 변인에 대한 대비 분석 결과, 공격적 운동집단이 공백집단이나 비교집단에 비해 순수 색채반응 수와 병적인 내용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공백집단은 무생물 움직임 반응과 조직화 점수의 빈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공격내용 변인은 비교집단에 비해 공격집단과 공백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논 의

로샤 검사의 공격성 지표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공격적 운동 반응과 공백 반응 및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고 있는 공격적 내용이 실제 공격행동을 예측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격적 운동과 공백 반응 변인 모두 실제 공격행동을 의미 있게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운동 반응은 입원 기간 이전의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공격 행동을 예언해 주는 변인이었으며($r = .261$, $p < .05$; $r = .322$, $p < .01$), 공백반응은 입원 전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을 예언해주는 변인이었다($r = .268$, $p < .05$). 공격내용 변인은 공격행동의 하위 유형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공격적 운동 반응 및 공백반응

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격행동을 예측하는데 함께 고려한다면 임상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 운동 반응이 2개 이상이면 분노와 적개심을 반영하며, 공백 반응이 3개 이상이면 타인과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고(Exner, 1993; Weiner, 1998), 두 변인이 모두 상승하면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이 행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Ganellen, 1996)는 선행 연구의 제안에 따라, 공격적 운동 반응이 2개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및 공백 반응이 3개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실제 공격행동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공격적 운동 반응이 3개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공백반응이 4개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두 변인이 상승한 집단에서 상승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실제 공격행동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2, 69) = 2.109, p < .05$. 이러한 결과는, 내면의 분노와 적개심이 적어도 실제 공격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운동이 3개 이상이거나, 공백반응이 4개 이상일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입원전의 물건에 대한 공격행동에서 공격적 운동 반응 상승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입원전의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에서는 공백반응 집단 및 비교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 중의 언어적 및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은 공백반응 상승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격적 운동반응과 공백 반응이 예측해주는

실제 공격행동의 유형이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공격적 운동 반응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적 내용을 언급하였을 때, 채점된다는 점에서, 물건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 중에서는 이러한 공격행동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MOAS 2점 이상)의 공격행동은 불과 14건에 그쳤다. 또한, 입원 치료를 받은 지 2주일 이후에 공격행동을 보인 경우는 단 4건이었으며, 비위협적인 언어적 공격과 문을 쾅 소리나게 닫는 것과 같은 정도의 경미한 공격행동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모두 성격장애군에 속하는 환자에서 보여진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정신증 환자에서 보여지는 공격적 행동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약물 치료의 효과로 인해 입원 기간중의 공격적 행동 발생 빈도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일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정신증 환자에서 보여지는 공격적 행동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급성기에 흔하다는 경험적인 자료들과, 정신 질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폭력 행동에 대한 최근의 논평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비해 더 위험하지 않다”고 제안한 Torrey(1994; Arango 등, 1999에서 재인용)의 견해를 들 수 있다. 또한, 정호성, 손지영, 정근재(2000)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분노 경험과 표현에 대한 연구 결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건강 대조군에 비해 상태분노가 더 컸으나 특성 분노-기질은 오히려 대조군보다 낮았고, 표현률도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해볼 때, 만약 정신증적 증상

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상태라면, 정신증 환자들이 다른 정신과 환자나 비환자군에 비해 더 공격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신증 환자가 무조건 더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이라든지 사회 재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 수가 있겠다.

공백반응이 입원 전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과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 분석에서는 공백반응이 4개 이상으로 상승된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입원 중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운동 반응 집단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4개 이상의 공백반응과 자살 지표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Exner (1993)의 제안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공백 반응의 상승이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공백반응이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분노 반응과 연관된다는 Exner(1993)의 제안을 고려해볼 때, 환자가 폐쇄 병동에 입원한 상태를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 항변의 수단으로써 언어적 공격행동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을 더 많이 드러내었을 가능성도 일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Loving 등(2000)은 명백한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공백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백 반응이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일어나는 분노반응과 연관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범죄자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 공백반

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자율성이 박탈된 것에 따른 분노감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Loving 등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집 대상 집단의 성격특성이나 기타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운동 반응과 공백 반응이 모두 판별점수 이상으로 상승한 사례가 하나에 그치고 있어 분산 분석 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두 변인이 모두 상승한 경우에 공격적 운동 반응이 상승한 집단에서 보이는 공격행동 유형과 공백반응 상승 집단에서 보이는 공격행동 유형을 모두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특성이 다른 하나의 특성을 제한하거나 더욱 극대화시키는지 하는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세 집단의 로샤 변인에 대한 대비 분석 결과, 공격적 운동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순수 색채반응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Exner(1993)의 해석적 견해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운동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보다 더 충동적이며 감정 조절 능력이 미흡하고, 공격성을 외부로 직접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병적인 내용도 공격적 운동집단이 공백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Nancy(1993)의 연구에서 살인을 저지른 집단에서 병적인 내용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며, 병적인 내용을 분노와 자기 주장성으로 해석한 Weiner (1998)의 해석적 견해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생물 움직임 반응과 조직화 점수는 공백반응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무생물 움직임 반응이 환경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며, 높은 조직화 점수는 환경자극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더불어 경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백 반응이 높은 집단에서 이 두 지표가 상승한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요컨대, 3개 이상의 공격적 운동반응과 순수색채 반응 및 병적인 내용 반응의 상승은 물건 및 타인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며, 4개 이상의 공백 반응과 무생물 움직임 반응 및 조직화 점수의 상승은 자신에 대한 공격행동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는 달리, 공격적 내용 변인이 공격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Gacono 등(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 Bairy 등(2000)이 제안한 공격 내용 변인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항목들만 선택하여 사용한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으며, 공격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격적 운동 및 공백반응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임상장면에서 공격행동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우에 공격 내용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예측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반응수를 가진 프로토콜은 성격기능을 거의 드러내주지 않는다고 경고한 Exner(1993)의 제안에 따라서, 14개 이하의 반응수를 가진 프로토콜을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Swanson, Blount, & Bruno, 1990; Hartman, Clark, Morgan, Dunn, Fine, Perry, & Winsch, 1990) 반응수

가 적다는 것 자체가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의 제한을 반영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본 연구자도 표집 과정에서 비록 적은 반응수로 인해 표집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격행동의 빈도나 심각도가 높은 환자들의 자료에서 반응수가 상당히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우 적은 반응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의 대부분이 공격적 운동내용인 프로토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반응수와 실제 공격행동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것도 공격행동의 예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가 후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입원 전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순전히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 채점되었기 때문에, 채점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입원 기간 중의 공격행동 역시 입원 중의 경과 기록지와 간호일지를 토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기록자의 주관적인 인상이나 가치관에 의해 기록자체가 편파되었을 가능성과 발생한 모든 공격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관찰자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격행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공격행동의 구체적인 수단이 나, 결과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SOAS-R(Staff Observation Aggression Scale- Revised; Uijman, Muris, Merckelbach, Palmstierna, Wistedt, VanRixtel, Allertz, 1999)을 이용한 전향적 연구를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만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나 외래환자에 비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아 타의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다소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공격행동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급성기에 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병 기간, 공격행동의 구체적인 발생 시기, 입원 형태(자의나 타의나)와의 관련성을 좀더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호성, 손지영, 정근재 (2000). 정신분열병 환자의 분노 경험과 표현. *신경정신의학*, 39(6), 1045-105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ango, C., Barba, A. C., Salvador, T. G., & Ordonez, A. C. (1999). Violence in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 a prospective study. *Schizophrenia Bulletin*, 25(3), 493-503.
- Baity, M. R., & Hilsenroth, M. J. (1999). Rorschach aggression variables: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2(1), 93-110.
- Baity, M. R., McDaniel, P. S., & Hilsenroth, M. J. (2000). Further exploration of the Rorschach aggressive content(AgC)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2), 231-241.
- Caldwell, C. B., & Gottesman, II (1990). Schizophrenics kill themselves too: a review of risk factors for suicide. *Schizophrenia Bulletin*, 16(4), 571-89.
- Exner J. (1986).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Basic foundations*(2nd ed.). New York: Wiley.
- Exner J. (199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Basic foundations*(3rd ed.). New York: Wiley.
- Fonda, C. P. (1977). The white space response. *Rorschach Psychology*, 2nd ed; 80-105. Huntington, NY: Krieger.
- Gacono C. (1990). An empirical study of object relations and defensive structure in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89-600.
- Gacono C., Meloy J. R., & Berg J. L. (1992). Object relations, defensive operations, and affective states in narcissistic,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 32-49.
- Gacono C. B., & Meloy J. R. (1994). The aggression response. In C. B. Gacono & J. R. Meloy(Eds.), *The Rorschach assessment of aggressive and psychopathic personalities* (pp. 259-27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anellen R. J. (1996). *Integrating the Rorschach and the MMPI-2 in personality assessme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rtman, W.L., Clark, M. E., Morgan, M. K., Dunn, V. K., Fine, A. D., Perry, G. G., & Winsch, D. L. (1990). Rorschach structure of a hospitalized sample of Vietnam veterans with PTS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149-159.
- Holt R. R. (1977). A method for assessing primary process manifestations and their control in Rorschach responses. In M.A. Rickers-Ovsiankina (Ed.), *Rorschach psychology* (2nd ed.), 375-420. Huntington, NY:Krieger.

- Kaiser-Boyd N. (1993). Rorschach of women who commit homicid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0(3), 458-470.
- Kay S R, Wolkenfeld F, & Murrill L M. (1988). Profiles of aggression among psychiatric patients. II. Covariates and predictors. *J Nerv Ment Dis*. Sep; 176(9), 547-57.
- Klopfer B., Ainsworth M. D., Klopfer W. G., & Holt R. (1954). *Developments in the Rorschach technique: Vol 1. Technique and theory*. Yunkers: World Book Co.
- Krakowski, M., Jaeger, J., & Volavka, J. (1987). Violence and psychopathology: a longitudinal study. *Compr Psychiatry*, 29, 174-181.
- Loving, J. L., & Russell W. F. (2000). Selected Rorschach variables of psychopathic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1), 126-142.
- Piotrowski, Z. A. (1957). *Perceptanalysis*. New York: Macmillan.
- Rose, D., & Bitter, E. J. (1980). The Palo Alto Destructive Content Scale as a predictor of physical assaultiveness in m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228-233.
- Saunders, E. A. (1991). Rorschach indicators of chronic childhood sexual abuse in female borderline patient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5, 48-71.
- Shader, R. I, Jackson, A. H, Harmatz, J. S, & Appelbaum, P. S. (1977). Patterns of violent behavior among schizophrenic inpatients. *Dis Nerv Syst*, 38(1), 13-6.
- Knoedler D. W. (1988). The Modified Overt Aggression Sca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2), 1610.
- Swanson, G. S., Blount, J., & Bruno, R. (1990). Comprehensive System Rorschach data on Vietnam combat vetera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160-169.
- Tanke, E. D., & Yesavage, J. A.. (1985). Characteristics of assaultive patients who do and do not provide visible cues of potenti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12), 1409-1413.
- Uijman, Muris, Merckelbach, Palmstierna, Wistedt, VanRixtel, & Allertz (1999). The Staff Observation Aggression Scale-Revised (SOAS-R). *Aggressive Behavior*, 25, 197- 200.
- Weiner I. B. (1998). *Principles of Rorschach interpret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esten D. (1990). Towards a revised theory of borderline object relations: Contributions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1, 661-693.
- Yudofsky, S. C., Silver, J. M., Jackson, W., Endicott, J., & Williams, D. (1986). The overt aggression scale for the objective rating of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1), 35-39.

원 고 접 수 일 : 2002. 8. 8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0. 15
게 재 확 정 일 : 2002. 11. 22

Aggressive behavior predictor in Rorschach response: focused in aggressive movement and space response

Tae-Kyoung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Gachon-Ghil Medical School**

Jae-Hwan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if Rorschach aggression variables(AG, S, AgC) are valid predictors of overt aggressive behaviors. 71 Rorschach protocol were randomly sampled among closed ward inpatients. Modified Overt aggression Scale(MOAS) was used for rating of overt aggression behaviors. At the result, AG wa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ggressive behavior toward self and persons, and S was significant correlation aggressive behavior toward self. Also, AG group($AG > 2$, $S < 4$) and S group($S > 3$, $AG < 3$)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compare group($AG < 3$ and $S < 4$) in MOAS. Especially, AG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 MOAS toward objects and persons at pre-admission periods, and S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 MOAS toward self during admission. It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gressive Contents and MOA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Rorschach, Aggressive behavior predictor, AG, S, AgC, MOAS